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김 용 식 교수 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선의 중첩을 통한 두개골 이미지 표현 연구

-내적 치유를 위한 본인 작품 중심으로-

2017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판화학과

이 영 윤

선의 중첩을 통한 두개골 이미지 표현 연구

-내적 치유를 위한 본인 작품 중심으로-

김 용 식 교수 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7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판화학과

이 영 윤

인 준 서

이영윤의 석사학위논문으로 인준함.

2017년 5 월

심사위원장 이 춘 욱 (인)

심 사 위 원 박 영 근 (인)

심 사 위 원 김 정 연 (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개요

이 글은 2014년 5월 ‘Another bellow me- 부제: 또 다른 나를 부르다’라는 명제로 본인의 석사 청구전에 전시된 작품(2012 - 2014년)의 내용적, 조형적 전개 과정을 연구한 석사 청구 논문이다.

본 논문은 본인 내면에 축적되어 있는 ‘무의식적 불안’의 심리적 현상을 지그문트 프로이트(Sigmund Freud, 1856-1939)의 무의식 이론을 중심으로 하여 살펴보고, 이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중첩된 선(線)적 표현’으로 드러나는 본인 작품에 주목하여 그 내용과 조형적 관점을 분석하고 서술한 글이다.

급격한 변화와 치열한 경쟁이 요구되는 현대사회 시스템에 적응해야 하는 현대인들은 커다란 심리적 부담을 안고, 획일적인 삶을 영위하고 있다. 물질적으로는 풍요롭지만 마음의 풍요가 없는 시대 속에서 현대인들은 여러 가지 심리적 문제가 결부된 장애를 직면할 수밖에 없다. 즉, 오늘의 현대인들은 물질적 풍요로움 속에서, 열등감, 수치심, 두려움과 같은 심리적 장애들이 내면에 쌓여 ‘무의식적 불안’을 지니면서 불안정한 삶을 이어가고 있다. 본인 또한, 성장기에 부모님과 반목과 갈등으로부터 ‘무의식적 불안’의 심리적 장애를 갖게 되었다. 이는 성년이 된 오늘까지 이어져 불안정한 삶을 이어가게 하는 요인으로서 본인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본인의 내면에 잠재되어있는 ‘불안’이라는 감정은 부모가 자식에게 바라는 끝없는 바람과 강제성이 내포된 책임감이 주는 ‘도덕적 불안’의 기억에 기인한다. 이러한 불안의 감성은 친숙하고 가까운 것을 이상하고 두렵게 느끼게 하는 ‘낯선(Uncanny) 불안’의 심리적 상황을 유발하여 정상적 사회생활을 위협하는 상황에 이르게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심리적 억압을 벗어나기 위해, 두려움과 혼란에서 야기된 불안의 본성을 ‘중첩된 선적표현’을 바탕으로 추상적 이미지로 전개하였다, 이후, 죽음과 허무를 메타포한 ‘두개골’ 이미지로 상징화하여 드러내었다. 두려움과 혼란에서 야기된 불안과 본성의 죽음과 허

무를 상징화 시킨 ‘두개골’ 이미지를 미술사적 측면의 의미를 현대 미술작가인 데미안 허스트(Damien Hirst, 1965-2017)와 짐 스킨(Jim F Faure, 1959-2017)의 작품을 예를 들어 상징적 의미를 논하였다.

본인 작품의 주 조형요소인 선(線)적 표현은 시각적인 소통을 위한 이미지를 형성하는 가장 기본적 수단으로, 감정의 분출을 가감 없이 잘 드러내는 드로잉적 표현성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선적 표현을 바탕으로 연속, 분리, 결합, 교차 등의 다양한 조형적 시도를 통해 억제된 감성을 해소하고, 무의식적 불안안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도를 서술하였다. 그리고 본인 작품의 주 조형요소인 ‘중첩된 선적 표현성’을 루이스 부르주아(Louise Bourgeois, 1911-2010)와 조지아 오키프(Georgia O'Keeffe, 1887-1986)작품의 표현성에 주목하여 논하였다.

판화 매체의 복수성을 활용해 동일한 이미지를 반복적으로 ‘이어붙이기’하는 작품의 구성 방식과 홀로그램과 유사할 만큼 다채로운 빛과 색의 표현성을 드러내는 ‘포일 박’의 도입은 본인 작품의 주요 특성으로 드러난다. 이에, 이미지를 반복적으로 이어 붙여 표현의 확장성을 도모하는 작가의 작품들과 본인 작품의 구성 방식을 비교하여 그 의도와 표현성을 분석하고, 또한, 빛과 색을 보는 각도에 따라 다르게 드러내는 ‘포일 박’의 도입 배경과 재료적 특성 그리고 표현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본인은 본 논문을 쓰면서 ‘무의식적 불안’의 심리적 경험을 토대로 이를 본인 작품의 조형적 특징인 ‘중첩된 선의 확장성’과 ‘반복적 형상 이어붙이기’, 빛과 색을 저장하는 ‘포일 박’ 기법 사용의 조형적 관점에 주목하여 연구하면서, ‘비가시적 세계’인 ‘무의식의 세계’를 시각화할 수 있는 조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계기를 갖게 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인간 내면의 무의식’을 ‘조형 언어’로 가시화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인지하였다는 측면에서, 이 연구는 앞으로의 본인작품 연구에 보다 심층적 탐구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단초가 될 것이라 믿는다.

목 차

논문개요

I. 서론	1
II. 본론	4
1. 내용적 전개	4
1) 삶의 무의식적 불안	4
2) 관계의 낯선(uncanny) 불안	6
3) 불안정한 두개골의 상징적 이미지	10
2. 조형적 전개	16
1) 중첩된 선의 확장성	16
2) 반복적 형상 이어붙이기	22
3) 빛과 색을 저장하는 포일박	27
① 압열 처리(pack heat treatment)	28
② 포일 열처리(foil heat treatment)	29
3. 작품 분석	32
III. 결론	49

참고 문헌

ABSTRACT

작 품 목 차

- <작품1> <Waves in the mind>, Foil heat treatment & Etching on paper, 120X63cm, 2013
- <작품2> <begin to bloom>, Foil heat treatment & Etching on paper, 50X50cm, 2014
- <작품3> <심연- Pond of the heart(black)>, Foil heat treatment & Etching on paper, 21X21cm, 2014
- <작품4> <심연- Pond of the heart(blue)>,Foil heat treatment & Etching on paper, 21X21cm, 2014
- <작품5> <심연-Pond of the heart(white-1)>, Foil heat treatment & Etching on paper, 21X21cm, 2014
- <작품6> <심연- Pond of the heart(white-2)>, Foil heat treatment & Etching on paper, 21X21cm, 2014
- <작품7> <Transition>, Foil heat treatment & Etching on paper, 100X80cm, 2012
- <작품8> <Spell on you-또다른 나에게 주문을 건다>, Large scan after pen drawing & Silk screen on paper, 27.3X19.5cm, 2013

<작품9> <왼편을 바라보는 해골>, pen drawing on a paper, 40X40cm,
2013

<작품10> <오른편을 바라보는 해골>, pen drawing on a paper,
40X40cm, 2013

<작품11> <오른편을 바라보는 해골>, Foil heat treatment & Etching on
paper , 40X40cm, 2013

<작품12> <왼편을 바라보는 해골>, Foil heat treatment & Etching on
paper , 40X40cm, 2013

참 고 도 판 목 차

- [참고도판 1] Hans Bellmer, <Petit traite de morale>외 드로잉, 1968
- [참고도판 2] 한효석, <감추어져 있어야만 했는데 드러나고만 어떤 것들에 대하여>, Oil painting on canvas, Variable installation, 각 218 X 146cm, 2010-2014
- [참고도판 3] 이영윤, <바라보다>, dry point, 40X28cm, 2012
- [참고도판 4] 이영윤, <drawing-3>, pen drawing on paper, 90.9X72.7cm, 2012
- [참고도판 5] 이영윤, <끝없는 드로잉>, dry point, 90.9X72.7cm, 2012
- [참고도판 6] Damien Hirst, <For the love of God>작품 제작 과정
- [참고도판 7] Damien Hirst, <For the love of God>,Platinum, diamonds and human teeth, 6.7X5X7.5in(17.1X12.7X19 cm), 2007
- [참고도판 8] Damien Hirst, <The Fear of Death>, Fly Paintings and Sculptures, 16.3X13.8X13.8cm, 2007
- [참고도판 9] Jim F Faure, <Skull>, Mixed media, 2000
- [참고도판 10] Jim F Faure, <Skull> 일부분, Mixed media, 1980
- [참고도판 11] Jim F Faure, <Skull>, Mixed media, 2000
- [참고도판 12] Lousie Bourgeois, <Untitled>, Ink on paper, 35.5X28cm, 1949
- [참고도판 13] Lousie Bourgeois, <Untitled>, Ink on paper, 35.5X28cm, 1953
- [참고도판 14] 이영윤, <spew>일부, pen drawing on paper, 2013
- [참고도판 15] Georgia O'Keeffe, <붉은 칸나, Red Canna>, oil on canvas, 91.4 X75.9cm 1924

- [참고도판 16] 이영윤, <begin to bloom>일부, Foil heat treatment & Etching on paper, 2014
- [참고도판 17] Georgia O'Keeffe, <호수로부터 1번, From the Lake No.1>, oil on canvas, 91.44 X 76.2cm 1924
- [참고도판 18] 이영윤, <begin to bloom>, Foil heat treatment & Etching on paper, 50X50cm, 2014
- [참고도판 19] 이영윤, 작업노트 드로잉 일부, pen drawing on paper, 2012
- [참고도판 20] Andy Warhol, <Marilyn Monroe>, silk screen, 92X92cm, 1962
- [참고도판 21] Andy Warhol, <200 Soup Cans>일부분, silk screen, 1962
- [참고도판 22] Andy Warhol, <Daisy Waterfall>(Rain Machine), mixed media and geographic prints, 271.8X629.9X175.3 cm, 1971
- [참고도판 23] 김영훈, 『깊이와 넓이 경계』 installation , 2013
- [참고도판 24] 이영윤, <Untitled>, Foil heat treatment & Etching on paper , 120X63cm, 2012
- [참고도판 25] 다양한 색상의 포일 박 (샘플북 일부)
- [참고도판 26] 이영윤, <Waves in the mind>의 압열 처리기계
- [참고도판 27] 이영윤, <Waves in the mind>의 홀로그램 포일의 다양한 에디션의 생성
- [참고도판 28] aluminum foil
- [참고도판 29] 술패랭이꽃
- [참고도판 30] 염색체의 구조

I. 서 론

오늘을 살고 있는 현대인들은 소셜 네트워크(Social Network Service)¹⁾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고, 자유로운 의사를 나누는 풍요로운 소통의 시대를 살고 있다. 그러나, 현대인의 의식 속에는 ‘불안’이라는 심리적 감정이 심각하게 내재되어 있다. 이는 빠른 삶의 속도에 의한 ‘자기성찰의 결여’와 성과사회의 ‘피로와 불안’으로 규정되는 현대사회의 특성과 무관하지 않다. 즉 물질적 풍요와 맞물려 마음의 풍요가 없는 현대사회에서는 많은 심리적 불안의 증후가 드러나지 않을 수 없다. 그 가운데 주목할 만한 것이 불안에 의해 야기되는 소위 ‘무의식적 불안’이다. 이는 단순한 심리적 불안과는 달리 친숙하고 가까운 것을 이상하고 두렵게 느끼게 하는 현상인 ‘낯선(uncanny) 불안’ 상황을 유발하여 건강한 사회생활마저 위협하는 상황에 이르게 한다.

‘불안’은 하루에도 몇 번씩 경험하는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는 매우 밀접한 감정이다. 알랭 드 보통(Alain de Botton, 1969-2017)은 우리의 삶은 불안을 떨쳐내고, 새로운 불안을 맞아들이고, 또다시 그것을 떨쳐내는 과정의 연속이라 주장하였다.²⁾

불안 장애는 삶의 과정에서 체험한 불안의 상황들이 누적된 결과물이다.

1) 특정한 관심이나 활동을 공유하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망을 구축해 주는 온라인 서비스인 SNS는 최근 페이스북(Facebook)과 트위터(Twitter) 등의 폭발적 성장에 따라 사회적·학문적인 관심의 대상으로 부상했다. SNS는 컴퓨터 네트워크의 역사와 같이 할 만큼 역사가 오래되었지만, 현대적인 SNS는 1990년대 이후 월드와이드웹 발전의 산물이다. 신상 정보의 공개, 관계망의 구축과 공개, 의견이나 정보의 게시, 모바일 지원 등의 기능을 갖는 SNS는 서비스마다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관점에 따라 각기 다른 측면에 주목한다. SNS는 사회적 과급력만큼 많은 문제를 제기하며 논란의 중심에서 있다.

2) 알랭 드 보통, 정영목 옮김, 『불안』, 은행나무, 2011. pp.9-11.

어릴 적 겪었던 마음의 상처, 타인 혹은 가족과의 불안한 관계에 의한 열등감, 수치심, 부끄러움, 자책감, 두려움 등이 누적되어 ‘심리적 불안감’ 이 형성되는 것이다.

본인 역시, 어린 시절 부모님과 반목과 갈등에 인한 불안한 상황들이 내면에 누적되어 ‘무의식적 불안’ 이라는 심리적 상처를 갖게 되었다. 이러한 불안정한 심리적 불안은 성년이 된 오늘까지 내면의 깊은 곳에 잠재되어 ‘불안정한 삶’ 을 이어가게 하고 있다. 본인이 느꼈던 ‘불안’ 이라는 감정이란, 부모가 자식에게 바라는 끝없는 바람과 강제성이 내포된 책임감이 주는 기억이다. 가족이 함께 살 풍족하고 넓은 보금자리로 이사하였지만, 아침식사 시간과 저녁시간에만 얼굴을 보며 말없이 식사하였던 기억과 그리고, 무언가 걸도는 가족과의 서먹서먹한 묘한 느낌은 아직까지 내면 깊은 곳에 뚜렷하게 각인되어 있다. 무엇보다도 가장 불안하고 고통스러웠던 기억은 초등학교에 입학과 함께 이루어졌다. 독방에서 혼자 생활을 해보지 않았던 어린 시절, 갑작스럽게 새 집으로 이사 간 첫날에 불 꺼진 방에 홀로 누워서 두려움에 눈물을 삼켰던 기억들은 본인에게 불안에 순응하며 사는 방식을 체득하게 하였다.

대학원 재학 중 본인은 ‘무의식적 불안’ 에 순응하면서도, ‘불안이라는 감정이 본인의 삶에 어떠한 의미 인가?’ 라는 반복적인 물음 속에서, 무심코 억압된 감정을 실어 거친 선으로 드러내면서 일순간의 집중력을 갖고 안정된 마음으로 이미지를 구축하는 자신을 발견하였다. 즉, 본인의 내면에 잠재되어 있는 ‘무의식적 불안’ 을 중첩된 선 드로잉 형식으로 시각화하면서 안정되어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 것이다. 이는 드로잉(Drawing)적 성향의 선(線)적 표현은 감정을 해소시키며 진정시키는 측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본인의 내면에 잠재된 ‘두려움과 혼란’ 에서 야기된 ‘불안정한 정서’ 를 죽음과 허무로 상징되는 ‘두개골’ 이미지로 상징하여 억제된 감정의 기복을 예민하게 잘 드러내는 선적 표현으로 불안감을 드러내어 이에서 벗어나고자 하였다.

본인은 작품 속에 내재되어있는 조형적 관점을 내용적 측면과 조형적 측면으로 나누어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본인 작품들을 구체적으로 실제 작품을 설명하려 한다.

본 논문의 II장 1절은 내용적 측면의 연구로서, 먼저 프로이드의 이론을 바탕으로 ‘무의식적 불안’의 실체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무의식적 불안의 파생적 증상으로 드러나는 ‘낮선 불안’에 대해 살펴보고, 본인 작품에 드러나는 ‘두개골 이미지’의 ‘상징적 의미’를 논하고자 한다. 이는 작품의 근간인 ‘불안의 개념’과 이의 상징화된 ‘두개골 이미지’의 이해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이어 조형적 측면의 연구로서, II장 2절에서 본인 작품의 주 조형요소인 ‘중첩된 선의 확장성’의 조형적 전개 방법을 살펴보고, 공간의 확장성을 이루는 표현성을 논하고자 한다. 그리고 본인 작품의 조형적 특징을 이루고 있는 판화의 복수 제작의 특성에 의한 ‘반복적 형상 이어붙이기’를 통한 공간의 구성에 대해 논하고, 인쇄매체에서 많이 사용하는 ‘포일 박’을 작품에 활용하게 된 계기와 그 빛과 색을 저장하는 표현의 특성을 설명하고자 한다. II장 3절 작품 분석에서는 ‘중첩된 선적 표현’으로 이루어진 초기 ‘추상적 이미지 작품’에서 ‘상징화된 두개골 이미지로’ 전이되어지는 작품의 변모 과정과 표현의미 그리고 조형적 관점을 설명하고자 한다. 이에 앞서 분석한 내용적 측면의 이론적 배경과 조형적 측면의 관점과 표현의 특성을 바탕으로 작품에 들어 있는 의도와 조형적 관점을 구체적으로 결합하여 작품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체적으로 서술하고자 한다. III장 결론에서는 II장 1절과 2절까지의 내용적, 조형적 서술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고, 자기 치유적 방안으로서 본인 작품의 의미에 주목하여 서술하고자 한다. 내용적, 조형적 측면이 작품 제작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고찰함에 주목하여 서술하고자 한다.

II. 본 론

1. 내용적 전개

1) 삶의 무의식적 불안

나만의 공간, 나만의 시간, 나만의 생활을 즐기려는 ‘나홀로족’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런 나 홀로 생활을 선호하는 움직임들은 효율성을 추구하는 산업 소비사회에서 야기되는 자연스러운 현상일 것이다.

과거 사회의 삶의 기반은 개개인의 유대를 중시하는 ‘관계성’ 속에서 형성된 공동체 문화 사회였다면, 오늘날의 사회는 개인의 개별적 다양성을 중시하는 개인적 개별 문화 사회로 변모되어 나아가고 있다. 이는 효율성을 중시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개인적 유대감을 바탕으로 한 공감대 형성이 어려운 사회 시스템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즉, 인간적 유대감 속에서 서로의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이해하고 감싸주는 물리적 노력을 통한 관계성 구축과 회복보다는, 오히려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고 나와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경계선에서 효율적 타협을 이루어가는 모습들을 삶의 곳곳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적 현상은 풍요로운 물질과 경제적 혜택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감정의 응어리는 가슴 한편에 묻어두고 보이지 않는 불안 속에서 늘 긴장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에서 잘 드러난다.

어떠한 이유로 우리는 ‘왜, 불안과 긴장의 감성을 유지한 채 하루하루를 살아감에 길들여져 가는 것인가?’ 오늘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깊은 사색을 통한 자기 자신에 대한 성찰의 여유도 없이, 급급한 일상 속에서 자신의 내적 감성적 욕구와는 상관없이 무의식적 불안 속에서 반복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러한 반복적 삶은 현대인들에게 무의식적 불안을 더욱 심화시킨다. 즉, 오늘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깊은 사색을 통한 자기 자신을 성찰의 시간을 가질 여유도 없이 분주한 일상 속에 맞추어 급급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본인 또한 삶의 궁극적 목적을 잃은 채 불안이라는 막연한 심리적 억압감을 부여받고 하루하루를 반복하며 분주한 삶을 영위하고 있다.

본인의 작품 속에 내재되어 있는 ‘불안’이라는 상태를 정신 분석 학자인 지그문트 프로이드(Sigmund Freud, 1856-1939)의 이론을 중심으로 하여 그 근원을 ‘무의식적 불안’에서 찾아보고자 한다. 무의식적 불안을 프로이드는 감각기관으로 인식할 수 없는 마음 깊은 곳에 감추어진 정신세계로의 본능, 열정, 억압, 관념과 감정 등이 잠재되어 있는 상태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프로이드가 말한 불안은 두려움과 비슷한 것으로 경우에 따라서 공포, 경악, 공황, 염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³⁾ 이처럼 프로이드가 말한 불안은 한마디로 명확하게 정의하기 어렵다. 프로이드는 불안을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었는데 ‘현실적 불안’, ‘신경증적 불안’, ‘도덕적 불안’이다.⁴⁾

현실적 불안(reality anxiety)은 외부 세계로부터 오는 위협을 인식함으로써 발생하는 고통스러운 정서적 경험을 말한다. 맹수나 독사를 마주하고 있는 상황, 천재지변이나 전쟁, 학기말 시험과 같은 현실에서 경험할 수 있는 불안을 예로 들 수 있다. 신경증적 불안(neurotic anxiety)은 본능으로부터 위협을 의식하였을 때 생기는 불안을 말한다. 신경증적 불안은 충동적인 행위를 시도하려는 본능을 제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예측된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다. 그 예로는 무대 공포증, 대인 공포증, 시험 불안증 등이 있다. 도덕적 불안(moral anxiety)은 자아가 죄책감 혹은 수치감을 경험하는 것으로 양심으로 인해 위협을 의식하면서 불안을 느끼는 것이다. 예로

3) 박현순, 『공황장애』, 학지사, 2000. p.39.

4) 켈빈 S.홀, 백상창 역, 『프로이트 심리학』, 문예출판사, 2000. pp.111-113.

들자면 처벌을 내리는 부모를 두려워하는 공포이다.⁵⁾

본인은 유년 시기에 경제적인 이유로 부모님과 따로 생활을 하면서 애착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부모님의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서 수치감과 함께 형성된 죄책감으로 인하여 도덕적 불안감을 가졌다. 본인에게 형성된 도덕적 불안은 성인이 된 현재까지 본인의 내면에 지속적으로 유지되어 억압적인 신경증적 불안을 유발하는 상처로 잠재되어 있다. 이러한 도덕적 불안은 본인의 내면에 대인관계의 불안정성을 증폭시키는 ‘낯선 불안(Uncanny anxiety)’으로 이어진다.

2) 관계의 낯선(uncanny) 불안

낯선(Uncanny)이란 표현은 철학, 문학, 심리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오래전부터 사용하고 있다. '낯선(uncanny)'이라는 단어는 1919년 프로이트의 [두려운 낯선 (The Uncanny, Das Unheimliche)] 논문에서 주장하기 시작하였다.

프로이트는 '낯선(uncanny)'이라는 개념을 무의식의 공간에서 억압함으로써 낯선 것이 되어 버렸으나 원래는 익숙했던 것이 다시금 되살아나 주체를 불온하게 만드는 직접적인 결과라고 표현하였다. 억압되어 소외된 낯익은 것이 반복적으로 강박되어 두려움과 불안을 안겨주는 낯선 것으로 회기 되는 언캐니의 본질적 속성을 독일어 어원이 갖는 의미에서 확인함으로써 증명을 하였다.⁶⁾ 프로이트의 ‘낯선’ 행위가 익숙해진 현상은 나홀로 생활하며 관계를 맺어가는 현대사회에서 가까이 볼 수 있다.

5) <http://www.sangdam.kr/encyclopedia/de/anxiety/anxiety2.html>

6) 임용덕, [현대 미술에 표현된 복식의 언캐니], 서울대학교, 2012, p.7-8

가까운 이웃과의 생활을 예로 들어본다면, 과거에는 담벼락 없이 따뜻한 정을 나누는 생활이 보편적 이었다면 현대에 와서는 옆집 사람의 얼굴을 보는 일도 힘들고, 서로에 대한 오고 가는 정은 사치이며, 무관심과 회피로 서로 개인 사생활을 존중하는 삶이 우선 되어가고 당연하다는 인식이 정착되어가고 있는 것이 현재의 모습이다. 본인 역시 가족과 생활하고, 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끊임없는 ‘낯선(Uncanny)’ 상황이 지속적으로 함께했다. 가족이 본인에게 바라는 바람은 본인에게 보이지 않는 억압으로 다가왔다.

‘낯선(Uncanny)’의 개념을 잘 드러낸 한스 벨머(Hans Bellmer, 1902-1975)의 [참고도판 1]드로잉이다. 벨머의 작품들은 대부분 시각적 쾌락에 대한 욕망이 성기로 집중되거나 혹은 혐오스러운 것들이 ‘인형’이라는 상징적 매개체로 도착(Perversion)을 표현하고 있다. 도착적인 주제를 강박적이며 도발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벨머는 도착적인 주제 안에 내재된 죽음이나 폭력을 형상화하고 있고, 사회의 인습이나 전통적으로 금기시되어 왔던 것들에 대한 위반을 ‘낯선’이라는 뒤틀린 표현법으로 사용된다.



[참고도판 1] Hans Bellmer, <Petit traite de morale>의 드로잉, 1968

‘낯선(Uncanny)’의 주제로 또 다른 작가를 본다면, 국내 작가 한효석(Han Hyo-Seok, 1972-2017)의 작품을 들 수 있다. 그의 작품은 사람 얼굴에 고깃덩어리를 붙여놓은 작품이다. 그는 [참고도판 2]와 같은 유화그림에서 시작해서 실제 돼지라고 착각할 정도로 똑같은 돼지 설치 작품을 전시장 허공에 등등 떠 있게 작업을 진행 시켰다. 한효석 작가는 인간의 존엄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다. 그에게 있어서 돼지를 인간에 비유하여 사용하고 있다. 돼지에게는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인간의 필요에 의해 태어나고, 죽음을 당하는 존엄성 결정권에 대한 작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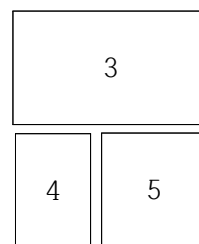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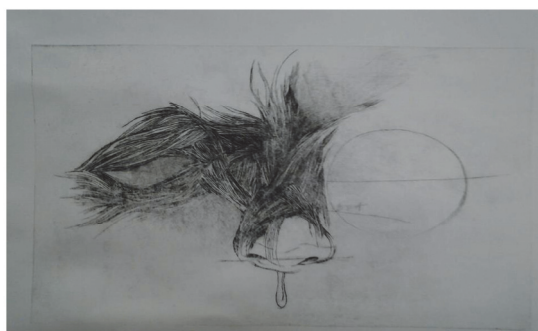
"고깃덩어리 얼굴을 그린 회화 작품을 통해 동물로서의 본질을 망각한 채 온갖 욕망에 사로잡혀 사는 우리의 참 모습을 보여 주고자 했다. 정면을 응시하고 있는 모델의 얼굴을 조우하는 우리는 한순간 빛이 번쩍이며 지금까지 망각에 젖어 살아온 자신들의 오만함과 마주하게 될 것이다." 7)

본인의 [참고도판 3],[참고도판 4],[참고도판 5]를 보면 형이상학적 측면에서 점점 관점의 확장되어 나가는 과정을 단계별로 느껴지는 낯선 불안을 드러내고 있다. 1인칭의 불안, 2인칭의 불안, 낯선 끝이 없는 공간의 불안 3단계의 과정을 통하여 본인에게 있어서 낯선 불안에 관하여 다양한 관점의 확장적 시도를 하였다.

7) <https://neolook.com/archives/20140410f>



[참고도판 2] 한효석, <감추어져 있어야만 했는데 드러나고만 어떤 것들에 대하여>, Oil painting on canvas, Variable installation, 각 218 X 146cm, 2010-2014



[참고도판 3] 이영윤, <바라보다>, dry point, 40X28cm, 2012

[참고도판 4] 이영윤, <drawing-3>, pen drawing on paper, 90.9X72.7cm, 2012

[참고도판 5] 이영윤, <끝없는 드로잉>, dry point, 90.9X72.7cm, 2012

3) 불안정한 두개골의 상징적 이미지

본인은 작품의 중심이 되는 억압이라는 ‘정서(emotion)’와 불안이라는 ‘감정(feeling)’이라는 심리적 상황을 ‘두개골’이라는 상징적 이미지로 표현하고 있다. ‘두개골’ 이미지는 종교적인 구원과 참회 그리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상징적 이미지로 과거 미술사에서 드러나지만, 표현의 다양화가 이루어져 있는 현대미술에 이르러 ‘두개골’이라는 상징적 의미는 종전 미술과는 차별된 죽음에 대한 새로운 의미로 해석된다.

본인에게 ‘두개골’의 이미지는 두려움과 공포로서의 죽음을 연상시키는 불안감을 야기하는 이미지로 다가온다. 모든 내적 불안이 두개골에 내재되어 있으며, 이는 때때로 심한 억압과 함께 다가오는 두려움은 알지 못하는 세계인 ‘죽음의 세계’를 연상시킨다. 이러한 두개골의 상징적 이미지는 현대작가들 작품에서도 드러난다.

차별화된 두개골의 상징적 의미를 표현한 현대미술 작가로는 영국 현대 미술의 중심축인 yBa(young British artists) 작가들 중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데미안 허스트(Damien Hirst, 1965-2017)를 들 수 있다. 그는 유한한 시간 속에서의 삶과 죽음 사이의 갈등, 그리고 영원성을 향한 인간의 욕망을 작품들을 통해 표현하였다.⁸⁾ 특히 그의 작품 [참고도판 7] <신의 사랑을 위하여 (For the love of God)>⁹⁾에서 볼 수 있다.

8) 홍정현, 『데미안 허스트(Damien Hirst)작업에 나타난 '상실'의 미학』,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2011. p.20

9) 데미안 허스트의 작품 '신의 사랑을 위하여'에 사용된 다이아몬드는 전체 1106.18 캐럿으로, 이마 중심에 박힌 52.4 캐럿의 핑크 다이아몬드 가격만 약 70억원이다. 전체 제작비는 약 200억원에 달한다. 작품이 만들어질 당시 현대 미술작품 중에서 제작비가 가장 많이 들

이는 실제 사람의 두개골에 모형을 주조한 후 다이아몬드와 은으로 장식한 작품이다. 데미안은 두개골의 작업을 하면서 이 작품을 통해 인간의 끝없는 욕망과 죽음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싶었으며, 죽음의 궁극적인 상징인 두개골에 사치와 욕망의 상징인 다이아몬드를 덮어버림으로써 ‘죽음이여 가라’라는 의미를 상징화 시켰다. 데미안 허스트는 ‘두개골’이라는 상징적 이미지를 표현한 내면에 담겨 있는 기술에 대한 현대인들의 두터운 신망과 믿음, 기대, 그러나 죽음 앞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함축적으로 보여주려 작품으로 표현된 것이다.¹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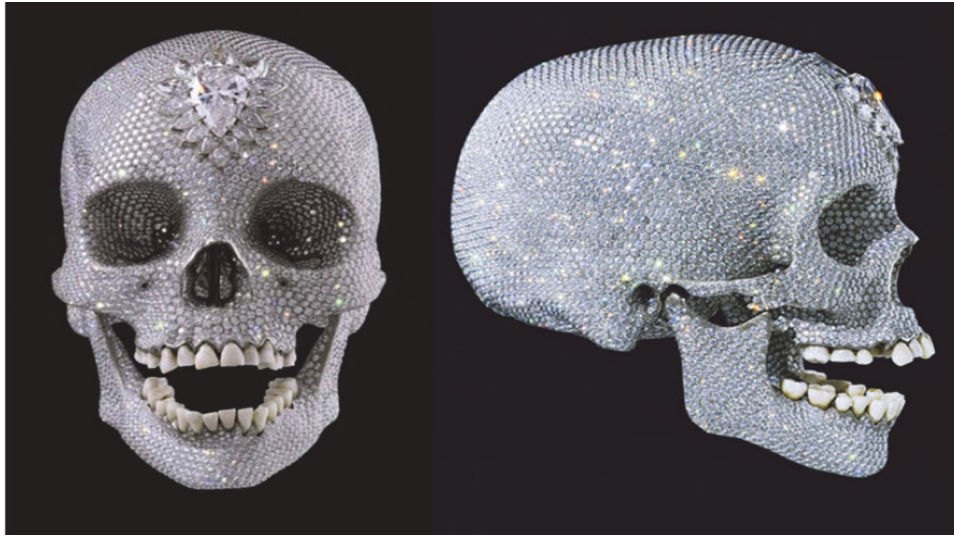
그의 두개골 작업은 연작 형식으로 이어졌는데 [참고도판 8] <죽음의 공포, The Fear of Death>의 작품이 있다. 이 작품은 이전에 다이아몬드를 일일이 배치하는 형식과 동일하게 파리들을 하나하나 배치한 작품이다. [참고도판 7]과 [참고도판 8]의 작품들은 그가 삶에 대한 성찰의 관점을 조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참고도판 7]의 삶의 무상함을 형상화하였다면, [참고도판 8]의 경우처럼 실제 파리 사체를 부착함으로써 죽음에서 오는 공포감을 표현하는 다양한 작업을 하였다.

었다. 이 작품은 런던의 화이트큐브에서 발표한 직후 약 940억원에 팔려 화제가 되었다.
10) 홍정현, 『데미안 허스트(Damien Hirst)작업에 나타난 '상실'의 미학』,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2011, p.31



[참고도판6] Damien Hirst, <For the love of God> 작품 제작 과정¹¹⁾

11) <http://blog.naver.com/lotusqueen/1100185138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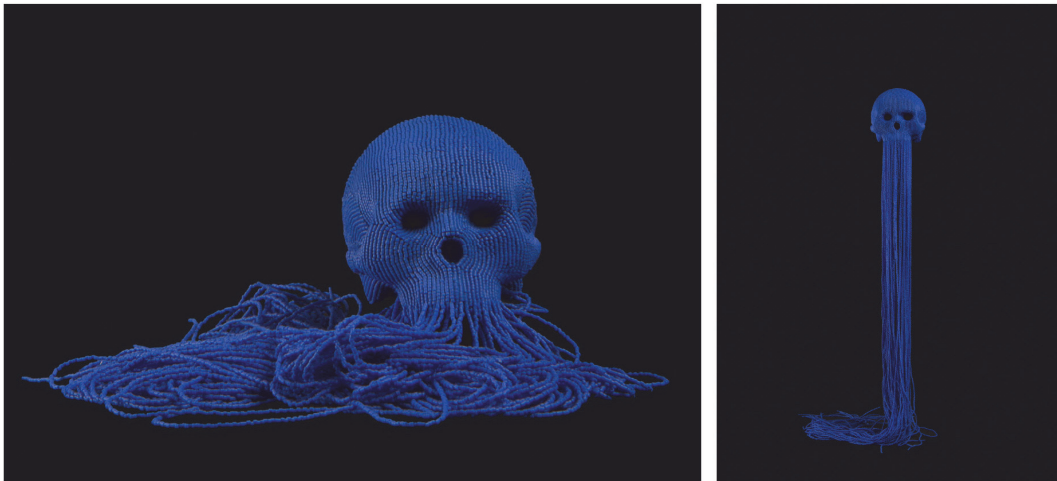
[참고도판7] Damien Hirst, <For the love of God>, Platinum, diamonds and human teeth,6.7X5X7.5in(17.1X12.7X19 cm),2007



[참고도판8] Damien Hirst, <The Fear of Death>,Fly Paintings and Sculptures,16.3X13.8X13.8cm, 2007

또 다른 두개골에 다양한 소재로 작업을 하는 프랑스 작가 짐 스킴(Jim F Faure, 1959-2017)이 있다. 그는 뉴칼레도니아 출신으로 두개골 형상을 주된 모티브로 사용하고 있으며, 다양한 재료와 그만의 기법으로 독창적인 작품을 표현하고 있다.

그는 홍콩 반도, 아프리카, 인도,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의 여행 속에서 각 나라의 문화와 의식을 경험하였다. 여행 과리로 돌아와 'Skull' 연작을 진행하면서 인간의 고뇌에 대한 작업을 주제로 진행하였다. 그의 작품은 대부분 노끈이 대표적으로 사용하여 정교한 작업이 중심이 되고 있다. 12) 그는 인간의 두뇌에 내재된 무수한 심리적 감성과 정서를 두개골의 신경조직처럼 미세한 노끈의 라인들이 무수하게 얽히고설킨 이미지로 표출하여 인간의 억압된 감성을 잘 드러내고 있다.



[참고도판 9] Jim F Faure, <Skull>, Mixed media, 2000

12) <http://jim-skullgallery.com>



[참고도판 10] Jim F Faure, <Skull> 일부분, Mixed media, 1980



[참고도판 11] Jim F Faure, <Skull>, Mixed media, 2000

본인의 작품에 등장하는 ‘두개골’ 이미지는 낯선 불안의 정서의 심리를 작품을 통하여 반영하고 있다. 본인의 <작품 8>을 보면 두개골의 나열이 되어있는 작품을 진행하였는데, 나열된 두개골에 각각의 불안의 의미를 부여하여 나열한 작품이다. 본인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느껴지는 가장 큰 불안을 3가지로 표현한 것이다. 보고, 듣고, 말하는 감각기관을 통해서 전달되는 각각의 불안을 두개골이라는 이미지로 상징화 시켜 표현한 것이다. 그리고 본인의 두개골에서 느껴지는 불안과 공포의 형상을 표현은 짐 스킨의 인간의 고뇌의 원인인 ‘억압된 감성’에 대한 작품들의 간접적 영향을 받았다. 중첩된 선적 표현으로 펼쳐지는 본인의 ‘두개골 이미지’는 무엇인가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답답함과 불안함을 어지럽게 엮힌 신경세포를 억압에서 풀어나가면서 평정심을 되찾고 내면의 불안을 다독거리 다스리는 의식과 같은 행위이다.

2. 조형적 전개

1) 중첩된 선의 확장성

선(線,line)은 시각적인 소통을 위한 형태를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조형요소이며 연속, 분리 결합, 교차 등의 다양한 특성을 포함한다. 선은 결합에 따라 공간의 특성과 긴밀하게 작용할 수 있고 표현의 주체가 된다.¹³⁾ 선은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유동적 이미지의 표현성을 잘 드러내는 조형요소이다. 형상을 만들어가는 선의 모습과 그 선들의 중첩되는 반복의 과정 속에서 이전의 형상과 동일 된 모습이 아닌 다른 이미지로서의 전이되어 가는

13) 최병상, 『조형』, 미술공론사, 1978. p.20.

변화가 고스란히 화면 위에 드러난다.

본인 작품의 드러나는 선적 표현은 중첩된 선의 결합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에 중첩된 선은 화면 안에서 생성과 소멸의 순간을 선으로 드러난다. 철
학적으로 생명은 하나의 범주에 안주하지 않고 자기-분화(self-
differentiation)에서 차이의 운동을 생명성이라는 개념과 연계된다고 보고
있다.¹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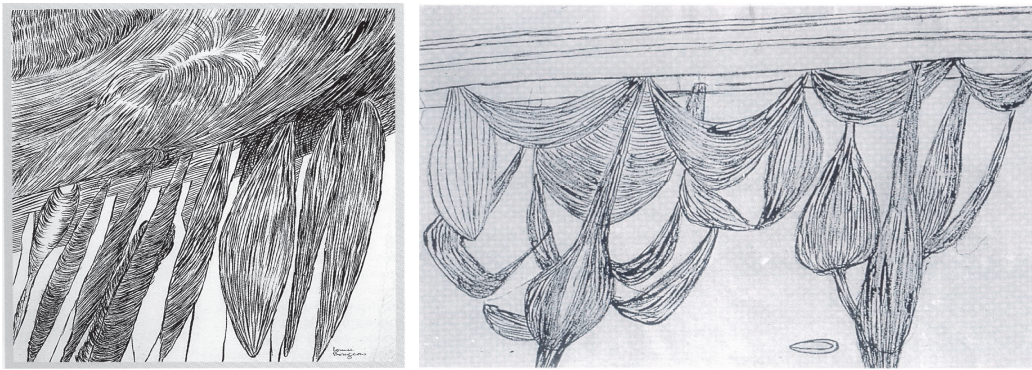
현대미술 작품 중에 루이스 부르주아(Louise Bourgeois, 1911-2010)
의 [참고도판 12],[참고도판 13]<Untitled> 드로잉에서는 유기적인 재생성
형태의 리듬감과 자유로운 흐름을 비정형의 활성화된 전개 방식으로 보여준
다. 부르주아의 선 표현은 보편적인 양식에서 벗어나 새롭고 자유로운 표
현양식을 원초성의 근원적 묘사에 대하여 주목하고 있음을 강조한다. 난형
(卵形)을 연상시키는 원초적 원형성은 아르프적¹⁵⁾인 유기체의 곡선과 볼륨
이 초현실적인 형상에서 출발한 예라고 볼 수 있다. 선의 중첩으로 인한 연
속적 반복적 구성은 작품의 공간을 확산시켜 확장되게 보이게 한다. 이런
확장된 구성은 재생의 순환과 반복 현상으로 깨닫게 된 생명의 종교적 경건
함의 참뜻과 숭고함, 영혼의 가치를 표현하는데 더 큰 의미를 두고 있는 것
을 의미한다. 정신분석적 해석의 관점에서 반복 강박은 불안과 공포에 따른

14) 키스 안셀피어슨 , 이정우 역, 『싹트는 생명(germinallife), 들뢰즈의 차이와 반복』, 해출
판, 2005. p.72.

15) 루이즈 부르주아의 원초적 원형성은 아르프의 곡선양식과 볼륨에서 기인한다. 아르프의 원
형의 작품에 감명을 받은 추상조각가 바바라 헵워드(BarbaraHepworth)는 예술의 형태적
인 요소는 형태들이 남기고 있는 외형과 내면의 관계라 언급하며 진정한 예술작품은 환
상, 힘, 생기, 균형, 형태, 아름다움을 지닌다. 이것은 물리적 속성과 정신의 내적 생명력” 인 것
이다.

생명력을 지닌 자유로운 이미지는 인생을 관찰함에 있어 사람을 감동시키는 내적의도가 중
요하다. 하버트 리드, 윤일주 역, 『예술이란 무엇인가』, 을유문화사, 1997. p.221.

두려움을 억눌러 자신의 상황을 극복하고 정제시켜 또 다른 긍정 에너지로 존재의 의미를 전환시켜보고자 하는 것을 작품에서 찾아볼 수 있다.



[참고도판 12] Lousie Bourgeois, <Untitled>, Ink on paper, 35.5X28cm, 1949

[참고도판 13] Lousie Bourgeois, <Untitled>, Ink on paper, 35.5X 28cm, 1953



[참고도판 14] 이영운, <spew>일부, pen drawing on paper, 2013

“선에 반복적으로 집착을 하고 있다.

자율적인 무의식 드로잉을 하면서 선에서 오는 오묘한 매력을 느끼기 시작했다. 곡선에서 또 다른 곡선이 파생되는 느낌이 마치 내 안의 세포들이 하나하나 내 손에서 생성된 느낌이 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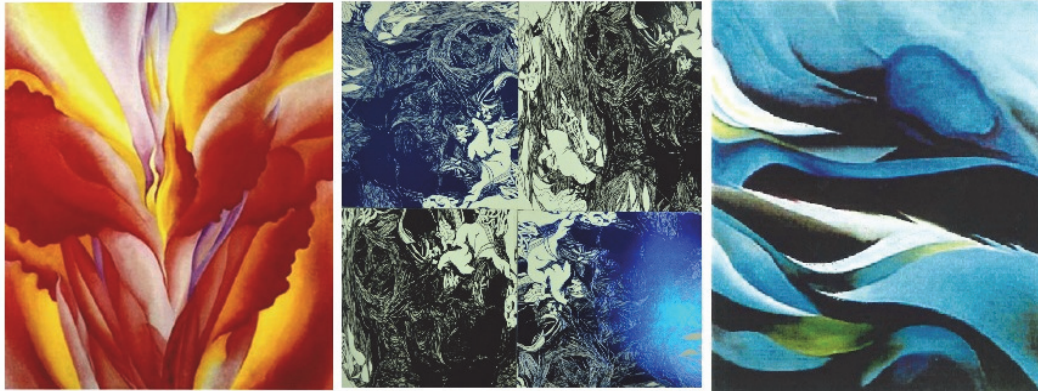
선에게 주문을 걸었다. 선이라는 대상에 또 다른 선으로 면을 만들고, 이러한 감정의 반복된 형이상학적 공간으로 변하여 희열을 느낄 수 있고 사명감의 동기 부여와 깨달음을 주기를 기도한다.”

-작업노트 중 일부-

형상을 통한 확장성을 표현하는 현대 작가로는 조지아 오키프(Georgia O'Keeffe, 1887-1986)가 있는데, 그녀는 식물의 곡선 양식, 꽃의 형상이 피어있는 모습을 거대하게 확대해 놓은 형태로 개성 있는 생(生)의 원초성에 접근하였다. 그녀는 자연에 관한 묘사를 재현하기보다는 원초적 원형의 이미지를 생명성의 가시적 개념인 추상 형태로 시각화하였다.¹⁶⁾

본인의 작품에서 부르주아의 드로잉과 오키프의 확장된 형상의 작품들과 동일한 조형 관점을 찾아 볼 수 있다. [참고도판18] <begin to bloom>는 유기적이며 신비로운 생명 에너지가 발산하는 분위기로의 선적 표현성을 드러낸다. 본인에게 있어서 선적 표현은 자아 성찰 직전에 본인의 불안한 모습을 거울을 바라보는 행위와 비슷하다. 감정을 담은 선을 표현하는 과정은 본인에게 온전히 몰입이 되어야만 한다. 선을 표현하는데 불안의 감정에 따른 강약 조절, 속도 조절, 공간의 구성으로 인한 밀집과 여백의 다양한 선택을 통해 형상을 이루는 과정을 거친다. 이러한 여러 가지의 과정은 본인이 선이라는 표현이 매우 예민하며 섬세한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특질에 주목하여 작품의 주 조형요소로 사용하였기 때문이다.

16) Nicholas Callaway, Georgia O'Keeffe. One Hundred Flowers, Alfred A. Knopf, 1989.
Peter-cornell Richter, Georgia O'Keeffe and Alfred Stieglitz, Prestel, 2006. p.255.



[참고도판 15] Georgia O'Keeffe, <붉은 칸나, RedCanna>, oil on canvas, 91.4 X75.9cm, 1924

[참고도판 16] 이영윤, <begin to bloom>일부, Foil heat treatment & Etching on paper, 2014

[참고도판 17] Georgia O'Keeffe, <호수로부터 1번, From the Lake No1>, oil on canvas, 91.44 X 76.2cm 1924



[참고도판 18] 이영윤, <begin to bloom>, Foil heat treatment & Etching on paper, 50X50cm, 2014



[참고도판 19] 이영윤, 작업노트 드로잉 일부, pen drawing on paper, 2012

‘이러한 선의 확장적인 반복의 행위는 내 속에 쌓여 있는 깊고 깊은 생각의 잔여물을 씻어 내리는 정화의 행위이다. 나는 작업의 일부가 완성될 무렵 선에게 질문을 하고 있다. 너는 어디까지 확장할 수 있고, 얼마만큼 깊이 있게 표현이 되며, 어디까지 표출할 수 있는지? 나의 어두운 깊은 곳에서 술래잡기하는 나의 자아를 찾아낼 수 있을까? 가능한 걸까?’

-작업노트중 일부-

본인 작품에서 드러나는 중첩된 선적 표현은 억압되어있는 내적 불안을 얽힌 실타래를 풀어나가듯이 하나하나 해체하여 이로부터 자유하려는 의식과 같은 조형 행위이다. 풀어나가면서 평정심을 되찾고 내면의 불안을 다독거리 다스리는 의식과 같은 행위이다.

2) 반복적 형상 이어붙이기

‘반복(反復)’이란 의미는 같거나 유사한 형태를 되풀이하는 것으로 두 가지 현상이 거듭하여 일어나는 현상을 말한다.¹⁷⁾ 형태의 반복은 우선 시각적인 면에서 화면에 리듬감 또는 연속성을 부여하는 것으로써 지정된 화면에 시각적 요소를 개입시키면서 동시에 화면이 외부의 공간으로 무한히 지속될 것 같은 확장의 효과를 불러온다.

형태를 반복하는 방법은 순수미술보다 모자이크나 직물 문양과 같은 장식 미술에 더 많이 사용되어 왔다. 회화나 조각에 있어서 구성의 목표는 ‘비례’나 ‘대비’의 법칙에 근거한 변화와 조화에 있었으며, 동일 형태를 반복하는 것은 단조로운 구성으로 오히려 회피되어 왔다. 그러나 현대미술에 와서 많은 작가들이 반복의 방법이 가진 의미와 효과에 관심을 가지게 됨으로써 반복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해 주고 있다.¹⁸⁾ 반복법의 등장은 산업사회의 도래로 기계에 의한 대량생산이 이루어지면서 나타난 것으로 현대 산업 사회의 지배적인 대중문화를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똑같은 행위를 반복하는 것은 심리적 만족감이나 성취의 의지를 보이게 해 보인다. 현대미술 작가들 일부는 복수 제작을 미덕으로 판화의 작업과 그 매체의 특성을 이용하여 이어붙이기를 사용하는 작가들이 있다. 대표적인 작가로는 앤디 워홀 (Andy Warhol, 1930-1987)을 들 수 있는데 당시 미국 사회의 모습을 대표할 수 있는 소비문화, 대량 생산된 상품과 대중문화의 아이콘을 소재로 작품을 제작하였다. 대중에게 익숙한 이미지들, 유명인의 초상, 공산품과 브랜드 이미지를 통해 작품의 시각적 정체성을 만들어 냈다.

17) H.H Amson, 『history of modern Art』 Third Edition New York : Harvy N. Abrams Inc, Publishers, 1997, p.6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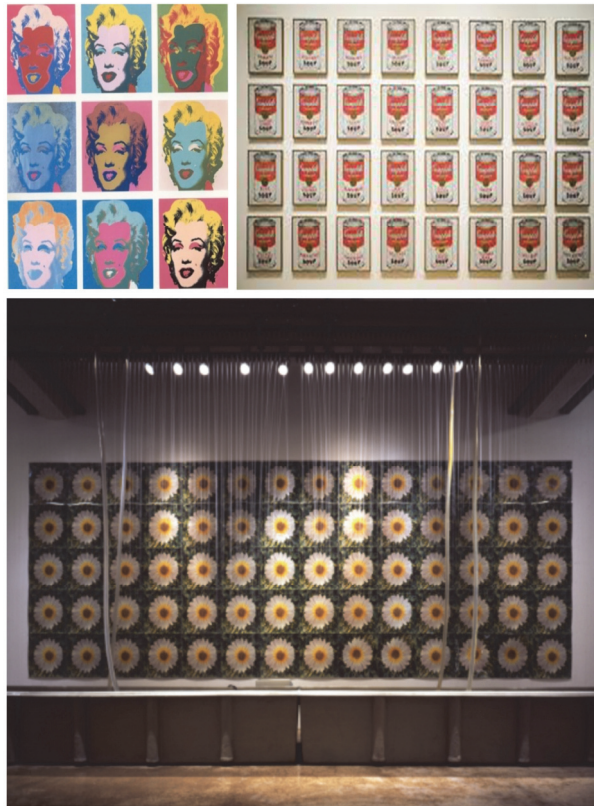
18) 윤난지, 『형태반복의 방법과 의미』, 월간미술, 1992.3월호, P.108

캠벨(Campbell) 수프 캔, 브릴로(Brillo) 박스와 코카콜라병 등의 대량 생산품에서부터 타자화된 이미지로 대중에게 소비되는 할리우드 스타, 정치인 등 유명인들과, 미디어를 통해 반복적으로 보도되어 본래의 의미를 상실한 각종 사건의 이미지 등 기존에는 예술의 소재로 고려되지 않았던 일상적이고 비개성적인 이미지를 소재로 택하였다.

그의 그림에 드러나는 유명인은 반복적인 재생을 통해 대중의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었다. 그는 이런 유명인들을 동경했으며, 자신의 작업의 소재로 이들의 이미지를 활용하였다. 1962년 앤디 워홀의 대표 아이콘이었던 마릴린 먼로의 초상 사진은 이미지를 실크 스크린 기법으로 여러 번 반복해 찍음으로써 끊임없이 재생산, 소비되는 대중문화 현상과 존엄성을 잃고 상품화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작품으로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는 이 외에도 유명인의 초상 시리즈 연작으로 엘비스 프레슬리, 재키 케네디 등의 인물화를 제작하였다.¹⁹⁾ 앤디 워홀의 이미지의 반복은 감각을 마비시키려는 의도와 동시에 이를 보는 관람객 양심을 무감각하게 만드는데 이용했다. 이처럼 반복은 1960년대 등장한 팝아트와 미니멀리즘이 공유한 대량 생산 미학의 핵심 요소였다.²⁰⁾

19) 이현주, 『브랜드 경영의 관점에서 본현대 미술 시장』, 서울대학교 대학원 미술경영전공 석사학위논문, p.48.

20) John Cage, *Silence: Lectures and Writings by John Cage* (Middletown, Connecticut: 1966), p. 93. 리사 필립스, 『The American Century』 (서울: 지안, 2005), p. 211



20	21
22	

[참고도판 20] Andy Warhol, <Marilyn Monroe>, silk screen, 92X 92cm, 1962

[참고도판 21] Andy Warhol, <200 Soup Cans>일부분, silk screen, 1962

[참고도판 22] Andy Warhol, <Daisy Waterfall>(Rain Machine), mixed media and geographic prints, 271.8X629.9X175.3 cm, 1971

앤디 워홀은 실크 스크린이라는 기법을 이용한 ‘반복적 형상 이어붙이기’ 라면, 국내 현대 판화 작가 중에 ‘반복적 형상 이어붙이기’의 구성을 이용한 작가로는 김영훈(Kim Young-Hoon, 1970-2017)이 있다. 김영훈의 작품은 복제성이라는 판화의 특수성을 활용했다. 검은 옷의 인물들이 수 없이 복

제되어 수평 또는 수직으로 나열되어 있다. 그는 수직의 나열은 자신 안의 깊이를, 수평의 나열은 자신의 외부의 무한한 깊이와 넓이를 가능하고자 반복적 형상의 배열을 적용하였다고 한다. 그가 표현한 작품들의 인물들은 시작은 있으나 끝이 없는 무의식으로서의 여행을 떠나는 존재들을 표현하였다.



[참고도판 23] 김영훈, 『깊이와 넓이 경계』 installation , 2013²¹⁾

본인은 앤디 워홀과 김영훈과 같이 ‘반복적 형상의 이어붙이기’를 구성하여 나열식 판화 작업을 하였다. 본인의 이어붙이기의 작업의 내용은 [참고도판 24]의 계기로 진행되었다. 드로잉을 통하여 생성된 두개골의 이미지를 다시 배치하여 반복함으로써, 독립된 화면과 화면을 이어주는 나열의 과정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불안의 지속됨에 불안의 감정은 시간이 지날수록 무감각해지는 현상을 조형적 효과로 형상화하였다. 불안을 잊기 위한 방법으로 본인의 내재된 불안과 억압의 감정들을 반복하여 이어붙이기를 이용하였다.

나는 그것이 본질적으로 똑같은 것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그것이 정확히 똑같은 것을 보면 불수록, 의미는 점점 더 사라지며, 느낌은 점점 더 좋아지고 점점 더 무심해지기 때문이다.²²⁾



[참고도판 24] 이영윤, <Untitled>, Foil heat treatment & Etching on paper, 120X63cm, 2012

21) <http://blog.naver.com/printart?Redirect=Log&logNo=20093138821>

22) Andy Warhol and Pat Hackett, POPism: The Warhol' 60s(New York:Harcourt Brace Jovanovich,1980),50. 헬 포스터. 『실제의 귀환』 (부산: 경성대학교 출판부, 2010), p. 210.

3) 빛과 색을 저장하는 포일 박

본인 작품의 특징 중 제일 두드러지게 일반적인 판화와 차별화되는 것은 대부분의 판화에서 사용하는 잉크 대신 포일 박을 도입하여 이미지를 구축하는 것이다. ‘포일 박’이란, 포일 열처리(foil heat treatment)를 간략히 불리는 단어이다. 포일 열처리는 얇은 강박(鋼箔, foil)으로 된 봉통(封筒)에 압열 처리(pack heat treatment) 방식으로 금박을 표현하는 효과이다. 이러한 포일 박은 기존에 프레스를 이용한 작업 방식보다 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고온의 열을 동판에 전이하여 에서 동판에 동일한 열이 전도된 이후에 찍어내는 과정을 거치기에 표현의 많은 제약이 뒤따른다.

포일박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동판 부식 작업을 거쳐 이미지의 요철을 만드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요철을 생성한 면이 선명하게 보이기 위해 섬세한 부식작업이 이루어져야 고온에도 동일한 이미지로 에디션을 생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인은 열간 압열 처리 기법을 사용하였지만, 포일 박을 사용할 때 고온프레스와 저온 프레스로 종류가 다양해지는 부분을 발견 할 수 있다. 제판 작업이 된 다음 제작한 판을 대형 롤 프레스기 한쪽에 부착시킨다. 그리고 고온의 예열과정과 테스트 프린팅과 핀을 설정한 후 판화의 에디션 작업을 진행하였다.

포일 박의 다양한 빛과 색을 담당하는 컬러 박은 이전에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금박이나 은박처럼 제한된 색채만 있어 표현의 제한이 있을 우려가 있었으나, 다행히 [참고도판 25]와 같이 요즈음 여러 가지 작가의 의도에 어울리는 빛과 색감을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색이 제작되어 있어 판화에서 응용 가능성이 매우 높은 소재이다. 포일 박은 일반 판화 잉크를 사용하여 작업했을 경

우보다 가벼운 느낌과 빛의 광도와 색채가 보는 각도에 따라 다른 표현성을 드러내는 신비로운 느낌을 자아내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판화 잉크에서 느끼는 단조로운 색채 표현에서 벗어나, 빛과 색을 저장하여 다채로운 효과를 드러내기에 이를 적극적으로 작업에 적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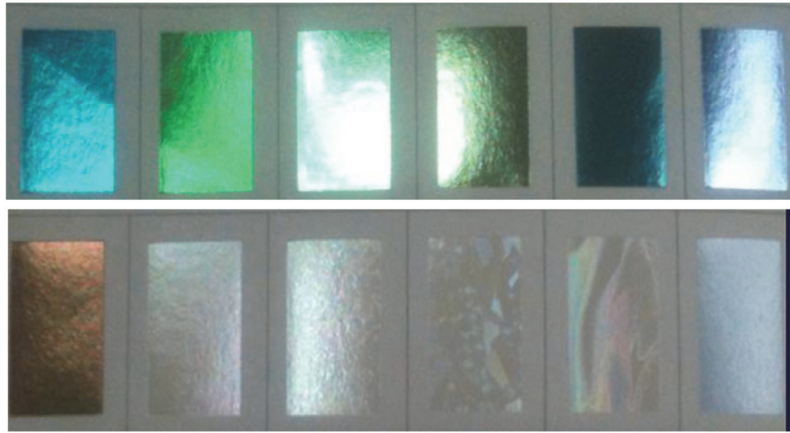
포일 박은 조명의 종류와 조명의 강도, 그리고 보는 방향에 따라 드로잉에서 오는 강약과 색상과 톤이 천태만상으로 변화되기에, 본인이 작품에서 드러내고자 하는 ‘무의식 불안’에서 야기된 ‘낮선 불안’ 담을 수 있는 다중적이며 다소 생경한 표현적 지니고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조도에 의해서 다양한 빛과 그림자로 비추어지는 재료적인 특성인 기이하면서 신비감을 드러내는 빛의 반사가 낮선 감정을 동시에 표현하기에 매우 적합 하였기에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사용하였다. 또한 다양한 색의 포일 박이 있기에 동일 이미지를 다양한 색으로 제작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① 압열 처리(pack heat treatment)

금속의 소성(塑性)을 이용해서 고온 또는 상온의 금속재료를 회전하는 2개의 롤 사이로 통과시켜서 여러 가지 형태의 재료, 즉 판(板)·봉(棒)·관(管)·형재(形材) 등으로 가공하는 방법이다. 압연에는 고온으로 하는 열간 압연(熱間壓延)과 저온에서 실시하는 냉간압연(冷間壓延)이 있다.

열간 압연은 압연 동력이 작아도 되고, 큰 변형을 쉽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단조품(鍛造品)과 같은 성질을 압연재에 줄 수가 있다. 그러나 고온으로 인한 산화에 의해 표면이 깨끗하게 되지 못하며, 치수의 정밀도도 좋지 않고 두께가 얇은 것도 만들 수가 없다. 23)

23) 두산백과.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23312&ref=y&cid=40942&categoryId=323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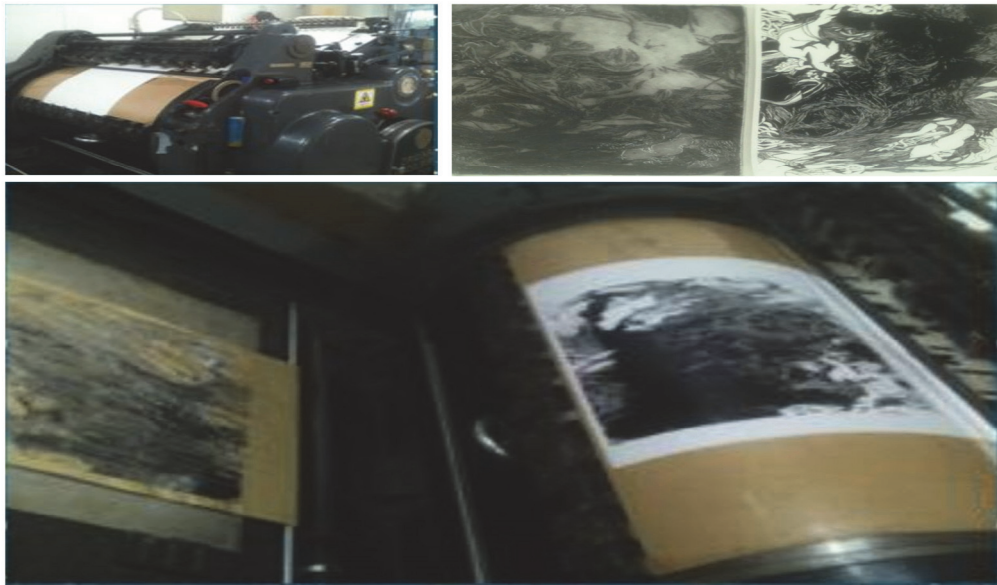
[참고도판 25] 다양한 색상의 포일 박 (샘플북 일부)

② 포일 열처리(foil heat treatment)

아주 얇은 강박(鋼箔, foil)으로 된 봉통(封筒)에 물품을 넣어서 열처리하는 방법을 풀림 열처리라고 한다. 포일 열처리는 팩 열처리(pack heat treatment)라고도 한다.²⁴⁾ 주로 열처리에 강한 알루미늄 포일(aluminium-foil)을 주로 사용한다. 알루미늄 포일은 보통 두께는 수 μ m 정도이며, 과자·담배 등의 포장이나 요리용·장식용 등에 사용된다.

24) 금속용어사전편찬회, 「금속용어사전」, 성안당, 1998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739440&cid=50325&categoryId=503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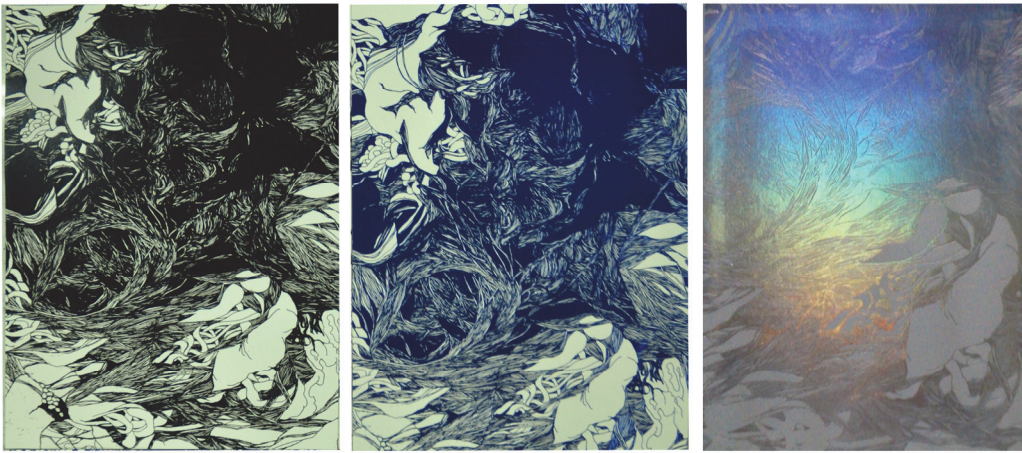
[참고도판 26] 이영운,<Waves in the mind>의 압열 처리기계

근래에는 종이와 맞붙이거나, 박의 표면에 그라비어인쇄를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되어 포장용으로서의 사용량이 격증하였으며, 다른 용도로서는 열의 차단용으로서 건축물의 천정·벽 등에 넣거나 광열(光熱)의 반사용으로 판(板)에 붙여서 사용한다. 또한 흔히 은박지(銀箔紙)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이것이다. 25) 이 박은 산업용 인쇄에 쓰이는데 박이라는 단어로 쓰이기도 한다. 대부분의 본인 작품에 종이 위에 판화적 작품의 오브제로써 이용하게 되었다. 사용하게 된 계기는 판화 잉크의 두께감이 드로잉의 얇고 섬세한 부분까지 살려지는데 한계를 느끼게 되었을 때 충무로의 판화 인쇄소들을 견학하면서 ‘포일 박’이라는 소재를 알게 되면서 시도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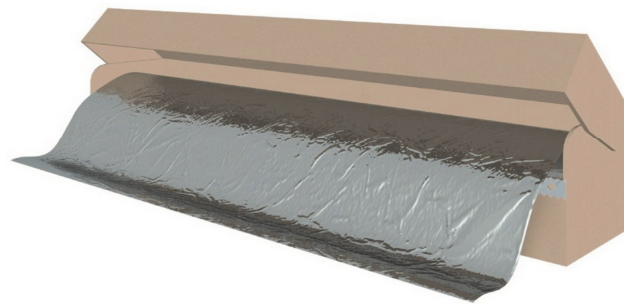
포일 박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전통적으로 사용하였던 금박이 아닌

25) 두산백과,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22877&cid=40942&categoryId=31887>

디자인 아니라 다양한 색이 있고, 그리고 윤기의 유무에 따라 다양한 컬러를 생성할 수 있다는 특이한 효과를 얻을 수 있기에 적극적으로 작품에 도입하였다. 또한 종이에만 접착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각종 천에도 접착이 가능하기에 다양한 방법으로 작품에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기니고 있는 소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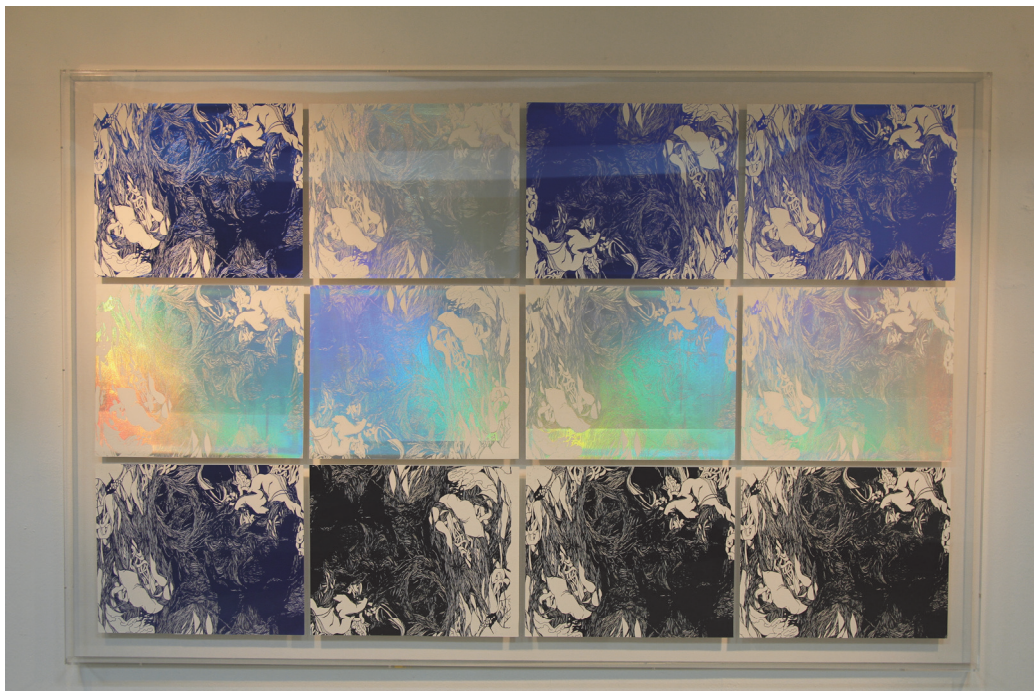
[참고도판27] 이영운, <Waves in the mind>의 홀로그램 포일의 다양한 에디션의 생성



[참고도판 28] aluminum foil

3. 작품 분석

<작품1>



<작품 1> <Waves in the mind>, Foil heat treatment & Etching on paper ,120X63cm, 2013

본인의 작품 중에서 ‘불안’의 심리 상태가 높은 작품이 <작품 1> <Waves in the mind>이다. 본인은 작업 과정 동안, 가족들과의 갈등과 불안의 감정 상태가 꾸준히 유지되었다. 그 결과 본인은 극도의 불안의 감정을 중첩되는 선들을 반복적으로 드로잉 하였고, 그러한 드로잉 행위를 통해서 해소되는 일탈감과 행복감을 느낄 수 있었다. 불안 속에서 쾌감이 생성되게 된 이유는 보편적인 관화 작품에서 볼 수 없는 제한된 규격의 판 크기의 탈피한 형태를 보여줌으로써 첫 번째 일탈을 달성한 것이다.

또한 조도의 양을 달리하여 관람하는 거리에 따라서 그림 속의 작품 풍경 이미지가 다각도로 보인다. 앞서 의도하여 보이는 조도의 이미지와 중첩되어 커다란 파장을 생성하여 공간성을 3차원적으로 보여 줄 수 있다. 작품의 전반적 재료는 높은 열을 이용하여 압축을 하여 찍어내는 포일 박 동판화 작업이다.

기존의 동판화에서는 약간의 종이 위에 엠보가 있는 입체감이 표현되었다면, 반대로 ‘압열 처리’가 된 판화는 판화의 이미지와 찍힌 자리의 엠보의 선명도는 더욱 선명하고, 포일 박 단면에 조명을 받았을 때에 살포시 종이와 전사된 면의 중첩된 부분의 조형 이미지가 더욱 그림을 입체감 있고 표현력이 풍부하게 보여줄 수 있다. 본인의 홀로그램-포일 열 전사 판화는 ‘잉크 판화’가 아니라 마치 ‘빛의 판화’처럼 느껴지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반복적 구성으로 판화를 배치함으로써 공간의 확장성을 도모하고, 다양한 의식의 흐름들이 동일 공간에 동시에 펼쳐지는 비현실적인 느낌을 부각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작품 1>의 조형적인 구성은 총 12조각의 배치를 판화 이어붙이기 형식의 작업을 하였다. 이어붙이기를 위해서 독립된 개체의 반복을 시도해 보기도 하였고, <작품 1>과 같은 자연물의 일부분으로 이어붙이기 된 풍경 또한 반복적 배치로 시도해 보았다.

<작품 1>의 첫 줄은 ‘청(靑)박’이라는 포일 박 중에서 유광의 소재를 이용하였으며, 두 번째 줄은 ‘홀로그램 박’을 사용하였다. 홀로그램 박은 빛이 반사되는 각도에 따라 밝은 은백색과 푸른색을 동시에 표현이 가능한 소재이다.

그래서 세 번째 사용된 먹(墨)박과 청(靑)박의 사용에 중간 위치에 배치하였다. 본인의 <작품 1> 색채의 변화되는 구성으로 배치하게 된 이유는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암울한 가정 환경이 심리적 치유의 과정을 통해 전개되어 가는 모습으로 자연스럽게 색채의 의미를 부여하여 표현해 보았다.

먹박의 색채 의미에 담겨져 있는 억압, 공포 마음속 불안의 감정을 지닌 유년기의 모습이라 비유해 보았다면, 청박은 절망과 이별을 통하여 고독을 느끼는 단계의 대학원을 다니며 보이지 않는 닳선 불안을 겪는 본인의 모습을 표현하였다. 마지막으로 홀로그램 박을 이용한 부분은 끊임없는 성찰로 인하여 얻은 치유의 모습을 담고 있다.

<작품 1>은 본인의 자아의 치유 되어가고 있는 과정이 보이는 본인의 성장 일기의 일부분처럼 작품이 진행되는 모습이 보인다. 본인은 <작품 1>을 진행하면서 내면의 성장과 치유가 되는 과정과 함께 하였다.

<작품2>



<작품 2> <begin to bloom>, Foil heat treatment & Etching on paper, 50X50cm, 2014

<작품 2> <begin to bloom>은 꽃 중에 술패랭이꽃(학명:Dianthus superbis)을 연상하게 하는 작품이다. 패랭이꽃은 돌 틈에서 싹을 틔우는 강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 패랭이꽃 종류 중에 꽃잎이 술의 여러 개로 찢어져 나누어져서 있는 형상을 가지고 있는 술패랭이꽃은 ‘위급’이라는 꽃말을 가지고 있다.

본인이 표현하고 싶은 불안정하고 위급한 감정이 술패랭이꽃이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과 매우 유사함을 발견하였다.

그리고 차가운 낯선 기분의 푸른색 느낌과 검은색의 느낌을 조화롭게 배치함으로써 더욱 파랗게 시린 서정적인 느낌을 주며, 잔잔하며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자연적 소재에서 오는 시적 조형과 신비스러운 색감의 표현으로 본인의 의도와 적합하게 표현하고자 하였다.



[참고도판29] 술패랭이꽃²⁶⁾

26) <http://sjaeman.blog.me/169652548>, <http://blog.daum.net/visan/2332>



<작품3> <심연- Pond of the heart(black)>, Foil heat treatment & Etching on paper, 21X21cm, 2014

<작품4> <심연- Pond of the heart(blue)>,Foil heat treatment & Etching on paper, 21X21cm, 2014



<작품5> <심연-Pond of the heart(white-1)>, Foil heat treatment & Etching on paper, 21X21cm, 2014

<작품6> <심연- Pond of the heart(white-2)>, Foil heat treatment & Etching on paper, 21X21cm, 2014

<작품 3>에서 <작품 6>까지는 <심연- Pond of the heart>의 시리즈로 진행된 작업들은 조형적으로 원을 그리고 있다. 원의 형태적 특징은 정적인 안정감과 원의 안쪽 선 드로잉은 동적인 운동감을 동시에 감상할 수 있다. 원의 크기, 형태의 변화, 배열의 배치에 따라서 다양한 형상과 운동성을 나타낼 수 있다. 또한 무한한 공간감을 표현하는데 효과적이다.

<작품 3>~<작품 6>의 제목이 심연(心淵)이라 사용함은 깊이가 알 수 없는 공간은 공간 안쪽에 있는 것들을 제한하고 보호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또한 그 중심으로부터 여러 모든 곳에 퍼져나가는 힘과 같은 에너지를 상징하기도 한다.

심리학자인 루돌프 아론하임(Rudolf Arnheim 1904-2007)은 “원은 한 정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의 궤적 및 그 궤적에 둘러싸인 평면 도형으로 시작도 끝도 없다. 원의 기하학적인 곡선을 그리며 출발하여 다시 출발점으로 되돌아오는 완전한 조형 형태이다.”²⁷⁾ 라고 주장했다.

원의 형성 과정을 가까운 자연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매일 형태가 다르게 보이는 달은 자전과 공전의 주기에 따라 변하며 결국은 완전한 원의 형태로 변화한다. 생명체에서 나타나는 항성(恒性)²⁸⁾이 형성될 때는 그 중심에서 끌어당기는 힘으로 인해 중심점으로부터 ‘원’ 형태가 완성된다.

또한 꽃이 원의 형태로 피어나는 모습을 살펴보면 중심점에서 방사형으로 뻗어나가는 같은 크기와 길이의 꽃잎들이 피어남으로써 원의 형태를 이루고 생명체에서 나타나는 원의 완전성을 대입하여 볼 수 있다. 앞서서 작업된

27) Arnheim, Rudolf, 김재은 (역), 『예술심리학』,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84.

28) 항성(恒性): [명사] 언제나 변하지 않는 성질.

<작품 3>~<작품 6>까지는 <작품 2> <begin to bloom>의 후반부의 연장의 작업으로 각각의 색감과 조형 안에서 우러나오는 본인의 심적 상황을 하나의 프레임 안에 표현하고자 진행한 연작이며, 개체의 원형 실루엣으로 진행된 작품이다.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마음이라는 추상적인 단어가 연못과 같은 의미라고 생각했기에 제목에 본인의 의도와 일치되어 동일한 제목으로 사용하였다. 연못은 계절에 따라 연못 속에 비치는 풍경이 자연스럽게 바뀌고, 때론 바위나 물로 인해 풍경이 흐려지거나 캄캄하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가 있는 것과 많이 부분이 닮아 있다.

<심연-Pond of the heart>의 작업은 연못 안에 있던 물들이 점점 정화가 되어 연못 안 물에 비친 모습이 빛으로 가득 찬 형상처럼 보이게 하자 홀로그램의 특성을 이용하게 되었다. 작품을 진행하면서 연구자의 심리상태를 많은 부분 닮아가는 점에서 작품을 표현하여 심리적 치유의 결과가 후반부에 진행되는데 작품에 많은 영향이 되었다.

<작품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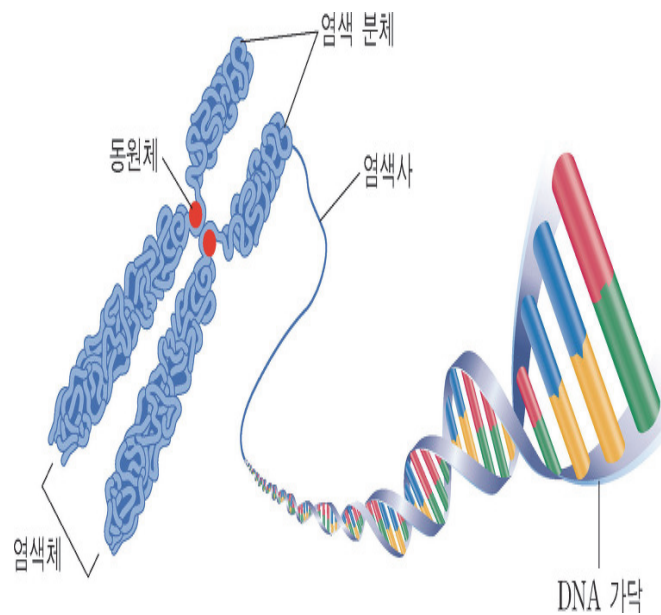
<작품7> <Transition>, Foil heat treatment & Etching on paper, 100X80cm, 2012



<작품7> <Transition>, installation

<작품 7> <Transition>의 작품은 관화의 반복적 이어붙이기 작업이 진행된 초기의 작업이다. 생물학적인 DNA의 염색체의 모양을 형상화하면서 서로의 쌍을 이루는 구성들은 본인의 불안의 유전자를 나열식의 구성으로 배치하면서 화면의 공간을 더욱 크게 활용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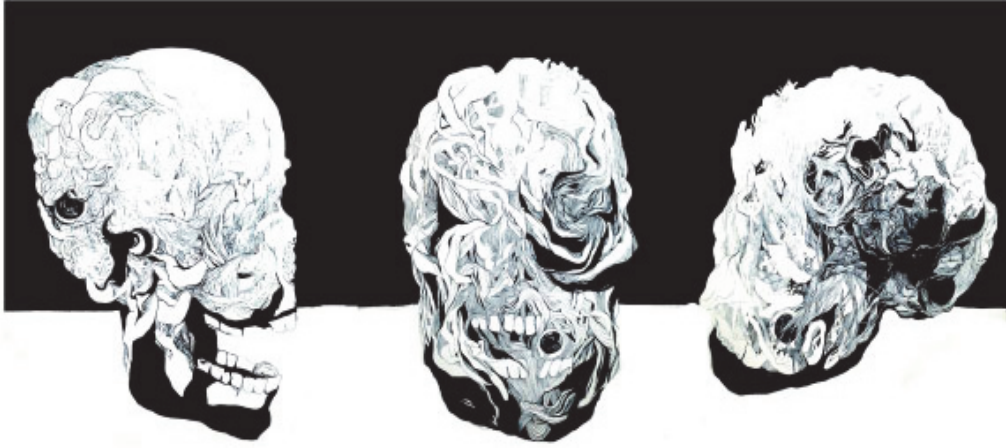
작품 크기에서 오는 압도감은 작품을 만든 본인의 감정이 고스란히 전달될 수 있도록 관람자들이 작품을 공포와 불안감을 느낄 수 있는 이어붙이기 작품이라는 의도로 제작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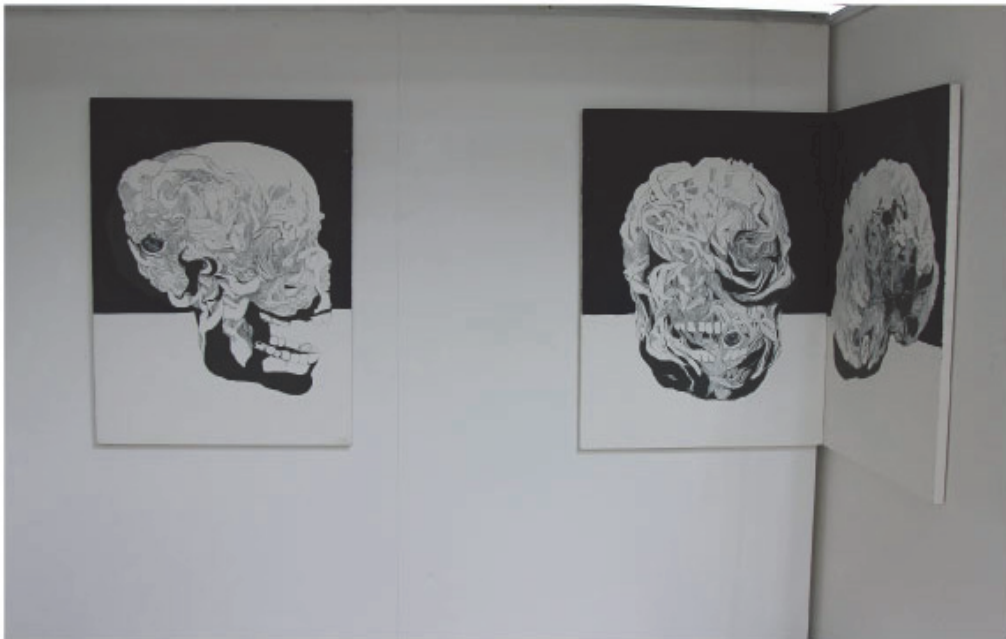
[참고도판 30] 염색체의 구조²⁹⁾

29) <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39XXX8800027>, Daum 백과.

<작품 8>



<작품 8> <Spell on you-또다른 나에게 주문을 건다>, Large scan after pen drawing & Silk screen on paper, 27.3X19.5cm, 2013



<작품 8> <Spell on you-또다른 나에게 주문을 건다>, installation

<작품 8> <Spell on you-또 다른 나에게 주문을 건다>라는 작품의 제작은 원본 사이즈와 가깝게 펜 드로잉을 한 후, 대형 스캔을 진행한다. 그리고 배경의 일부분의 실크스크린을 이용하여 배경에서 오는 무거운 느낌을 실크 잉크의 두꺼운 두께 층을 구성하여 무거운 감정의 표현으로 사용된 작업이다. 그리고 전시장의 단순하게 이어붙이는 구성이 아닌 전시장의 흰 벽의 공간이 작품의 배경과 한 공간 속에 있는 듯한 착시 효과를 느낄 수 있게 하였다. 어두운 공간의 극대화된 긴장감 있는 불안의 감정을 충실하고자 이와 같은 구성을 하였다.

원편의 두개골 형상이 마치 가운데와 오른쪽 두 개의 측면 두개골에게 주문을 외우는 속삭임이 느껴지게 관람객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위치에 그림의 공간을 형성하고자 하였다. 두개골 모양들이 단순하게 머리의 의미를 가진 것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 내재된 생각과 관념들이 덩어리로 이루어져 두개골이라는 개체 속에 상징적으로 표현하고자 하였다.

<작품 8>의 작품이 진행되던 시기에 조부의 갑작스러운 병 악화로 사망한 기억이 연구자의 머릿속에는 커다란 충격으로 자리 잡고 있다. 또한 슬퍼할 겨를 없이 가족들 간의 불신과 다툼, 시기, 질투, 욕망을 가까이서 지켜보고 겪게 되었는데, 가장 친밀한 관계의 가족과의 신뢰감 추락의 상황을 고스란히 <작품 8>에 감정이입하여 표현하게 된 작업 배경을 가지고 있다. <작품 8>에서 서로가 보이지 않는 상태임에도 싸움은 끊임없이 진행되고 서로를 이간질하는 모습이 본인이 겪은 상황과 일치함에서 오는 흔적의 일기라 할 수 있다.

본인은 <작품 8>을 통해 싸움이 결국 해결되지 않고, 반복되는 불안과 긴장감만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라 생각한다. 오히려 가족 간의 보이지 않는

싸움은 어느 타인과의 다툼보다 더 은 참을 수 없는 고통이며, 커다란 배신감이 극도로 높아지는 잔인한 모습으로 기억된다.

배신감과 울분이 가득 찬 본인의 부모는 결국 본인에게 ‘모순된 훈육’으로 폭력적인 정신 학대를 하였다. 본인은 학대를 당하면서 죽음의 한순간을 느끼기도 한 상황적 불안을 두개골 형상으로 드러내었다.



<작품9> <왼편을 바라보는 해골>,pen drawing on a paper, 40X40cm, 2013



<작품10> <오른편을 바라보는 해골>,pen drawing on a paper,40X40cm,2013



<작품11> <오른편을 바라보는 해골>, Foil heat treatment & Etching on paper , 40X40cm, 2013

<작품12> <왼편을 바라보는 해골>, Foil heat treatment & Etching on paper , 40X40cm, 2013



<작품11>,<작품12> <오른편을 바라보는 해골> <왼편을 바라보는 해골>,installation

<작품 9>와 <작품 10>은 측면을 바라보고 있는 조형으로 드로잉으로 표현한 부분이다. <작품 9>, <작품 10>의 드로잉을 기반으로 포일 열처리 기법을 사용하여 일부분의 반전으로 표현된 것이 <작품 11>, <작품 12>이다. 펜 드로잉을 한 <작품 9>, <작품 10>을 가지고 실크스크린을 위한 제판을 만들어 감광 한 후, 감광된 부분을 실크 잉크가 아닌 접착제가 종이에 도포가 되도록 실크스크린 기법을 이용한다. 그리고 열판 위에 접착제가 도포된 종이를 올려놓은 후 접착 액 위에 ‘포일 박’을 알맞게 덮어준다. 열판과 수평이 맞게 ‘포일 박’을 덮은 후, 위에서 일정하게 열을 동일하게 전달하여 준다. 충분히 열이 전도된 후 ‘포일 박’ 비닐을 벗기면 종이 위에 ‘홀로그램 박’만이 남아있게 되는 과정을 거친다.

실크스크린과 포일 열 전사를 하면서, 판이라 부르는 드로잉 작업과 판화 작품을 서로 마주 보이게 설치함으로 거울을 바라보고 있는 한 공간을 구성하는 상황을 연출하였다. 설치된 마주 보고 있는 판화와 드로잉 작품은 전체적 형상이 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내부 구성은 <작품 9>, <작품 10>에서는 선적인 표현방식이라면, <작품 11>, <작품 12>는 면적인 표현으로써 다른 감성을 자극하게 한다. <작품 9>, <작품 10>은 불안과 긴장감이 넘치고, 예민한 감정의 상황을 어둠 속에 꼼짝없이 두려움을 느끼는 중이라면, <작품 11>, <작품 12>는 차분하고 산뜻한 느낌의 있는 듯 없는 듯한 느낌을 주는 작품이다. 이러한 이중적인 느낌이 한 공간에 배치하여 이질적이지만 같은 틀에서 나온 다른 느낌으로 연구자의 과거의 우울한 가정 형편과 사건 속의 모습, 현재의 심리적으로 치유된 행복한 본인의 모습이 <작품 11>, <작품 12>로 표현되었다. 과거의 드러내고 싶지 않은 슬프고 긴장된 불안의 기억이 <작품 9>,

<작품 10>과같이 본인이라는 사람 속에 기억되고 겪었던 감정들의 정적인 상징적 모습으로 표현해 보았다.

이로써 본인의 대표적 작품을 살펴보았는데 <작품 7>에서<작품 10>까지의 작품에서 보이듯이 본인 개인의 우울하고, 불안한 감정을 주제로 시작하여 자아 성장과 감성치유의 목표 달성까지 진행되는 모습들이 <작품 1>에서 부터 <작품 6>까지의 변화해가는 작품의 진행 과정을 통해 볼 수 있다.

Ⅲ. 결 론

사회적으로 개인은 다양한 경험과 관념의 차이들로 불안 요소와 두려움에 노출되어 있고, 이에 순응하며 살아가고 있다. 불안이라는 안정적이지 못한 감정은 본인에게 익숙하지 않고, 낯선(uncanny) 감정이었으며, 이러한 불안 요소의 근원이 어디에서 왔는지에 대해서 탐색하여 이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이의 해소를 위한 방편으로 자유로운 드로잉의 선적 표현으로 불안의 감성을 표출하여 이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본인은 과거 유년시절부터 소통의 부재와 가족애가 없었던 가정환경 그리고 친구들과 소통이 원활하지 않았던 기억으로부터 박탈감을 동반한 정서적 불안감에 시달려 왔다. 이에 무의식적으로 그어 들어가는 드로잉 속성에 기대어선 하나하나에 본인의 감성을 내재하여 이미지화 시키면서 본인의 마음을 다스리고자 하였다. 즉, 불안이 내재된 일상에서 벗어나기 위해 미술의 조형적 표현으로부터 내면의 치유를 위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인은 불안 속에서 경험한 낯섦(Uncanny)의 관계들을 선적 표현을 통해서 벗어나고자 하였다. 작품에 대한 연구를 통해 본인 스스로 억압된 내적 상처를 다독거리면서 내면의 불안의 감정 상태를 치유하고 해소하고자 다양한 시도와 연구를 하였다. 드로잉을 판화적 표현으로 전환 시키면서 ‘표현 소재 고유의 자율성’을 지니면서, 얇고 미세한 부분까지 드러내는 표현 방법을 구하고자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다. 이러한 과정에 인쇄소가 밀집되어 있는 충무로를 탐방하면서 ‘포일 열처리(foil heat treatment)’ 기법의 금박 프레스를 발견하고, 이를 작품에 적용하기 시작하였다. 이 기법은 기존의 판화의 표현성을 을 뛰어넘는 기법이라 여겨졌다. 이 기법은 조도의 변화와 조도

의 위치에 따라 다양한 색을 생성하는 측면에서 본인 작품의 의도성을 잘 드러내는 표현 방법이라 여겨졌고, 그리고 ‘포일 박’ 기법이 낯섬의 분위기를 표현하는데 매우 적합하다 판단하였다. 이 기법은 조도에 의해 화려한 색채를 가지고 있으면서, 화려함에 의해 산만함까지 동시에 표현되는 측면의 표현성을 지니고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종이에만 접착이 되는 것이 아닌 각종 다양한 천과 기본 바탕재 위에 접착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어 다양한 방면으로 본인의 내면세계의 ‘언캐니’ 적 분위기를 연출하기에 매우 적합한 기법이라 생각하였다.

본인은 ‘암울하고 우울한 가정의 성장 배경에 의한 기억’ 과 연계된 사회 생활의 불안적 요인을 극복하고자 하는 ‘치료적 의미’ 에 주목하여 석사 졸업 작품전 주제를 의도하고 기획하였다. 그리고, 논문 자체도 미술 치료적 의미에 방점을 두고 연구하다 보니 다소 개인적 특수성을 부각 시킨 측면이 있다. 또한, 본인의 개인적인 경험을 통한 한정적 사고에 의한 이분법적 사고의 표현성에 머무르다 보니, 보다 포괄적이고 넓은 심층적인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 아쉬운 측면을 안고 있다. 그러나, 이 연구를 통해서 ‘마음’ 이라는 비가시적 세계를 가시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이론적 조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측면에서 앞으로 작품 제작 진척에 커다란 계기가 될 것이라 믿는다.

끝으로, 이번 논문을 바탕으로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기본 감정 즉 ‘희·노·애·락’ 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본인 내면을 좀 더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따뜻한 감정과 감성을 다양한 재료에 대한 탐구와 표현 방법의 모색을 통하여 대중에게 쉽게 소통하며 다가갈 수 있는 새로운 표현성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

참고 문헌

<단행본>

금속용어사전편찬회, 「금속용어사전」, 성안당, 1998

김용식, 『확장된 개념으로써의 현대판화의 동향』, 산업미술연구소, 1995

박현순, 『공황장애』, 학지사, 2000

알랭 드 보통, 정영목 옮김, 『불안』, 은행나무, 2011

윤난지, 『형태반복의 방법과 의미』, 월간미술, 1992.3월호

이시형, 『이시형과 함께 읽는 프로이트 2』, 중앙 M&B, 2002.

임용덕, [현대 미술에 표현된 복식의 언캐니], 서울대학교, 2012

최병상, 『조형』, 미술공론사, 1978

켈빈 S.홀, 백상창 역, 『프로이트 심리학』, 문예출판사, 2000

켈빈 S.홀, 황문수 역, 『프로이트 입문』, 한림 미디어, 1999

키스 안셀피어슨, 이정우 역, 『싹트는 생명(germinallife), 들뢰즈의 차이와

반복』, 해출판, 2005

하버트 리드, 윤일주 역, 『예술이란 무엇인가』, 을유문화사, 1997

Andy Warhol and Pat Hackett, POPism: The Warhol' 60s(New York: Harcourt Brace Jovanovich,1980),50. 헬 포스터. 『실제의 귀환』 (부산: 경성대학교 출판부, 2010)

Arnheim, Rudolf, 김재은 역, 『예술심리학』,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H.H Amson, 『history of modern Art』 Third Edition New York : Harvy N. Abrams Inc, Publishers, 1997

John Cage, Silence: Lectures and Writings by John Cage (Middletown, Connecticut: 1966), 리사 필립스, 『The American Century』 (서울: 지안, 2005)

NicholasCallaway, 『GeorgiaO'Keeffe. OneHunderedFlowers』 , AlfredA.Knopf, 1989

Peter-cornellRichter, GeorgiaO'KeeffeandAlfredStieglitz ,Prestel, 2006

<논문>

강유정, 『무의식적 반복행위를 통해 표출되는 자아표현의 연구』, 세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성필하, 『회화에 나타난 언캐니(uncanny)의 표현』, 청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6

이현주, 『브랜드 경영의 관점에서 본현대 미술 시장』, 서울대학교 대학원
미술 경영 전공 석사학위논문

조성한, 『Beksinski의 藝術世界研究』,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22

최세정, 『소재의 형상을 통한 상징적 표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5

홍정현, 『데미안 허스트(Damien Hirst)작업에 나타난 '상실'의
미학』,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2011

ABSTRACT

A study on expression of skull images by overlapped lines

– Focusing on the own work for inner healing –

Lee, Young Youn

Department of Printmaking

Graduate School of

Sungshin University

This paper is a master's thesis studying the content and figurative process of development of works displayed at mater's exhibition (2012~2014) of myself under the title of "Another bellow me—sub—title : calling another me" on May 2014.

This paper examined the psychological phenomenon of "subconscious anxiety" accumulated in my inner side focusing on the "unconscious theory" of Sigmund Freud(1856–1939), and focused on my works expressed as an "overlapped linear expression" as a solution to overcome, and analyzed and described the contents and view on its figurative feature.

Modern people who must adjust to modern system which requires quick changes and harsh competition bare serious psychological

burden and live standardized lives. They are rich in material, but directly face disorder combining various psychological problems in the era of psychological poverty. In other words, in the midst of plenty material, modern people build psychological disorders such as sense of inferiority, humiliation, fear and lead instable life bearing "unconscious anxiety". I also have a psychological disorder for "unconscious anxiety" due to conflict with parents in growth phase. It has been significantly affecting my life as a factor leading unstable life until today as an adult. The "anxiety" inherent in my inner side is originated from the memory of "ethical anxiety" which the endless expectation of parents for their child and forced responsibility built. Such anxiety cause psychological condition of "uncanny anxiety" which makes something friendly and close to be strange and fearful and threatens normal socialization.

Also, to escape from psychological suppression, the nature of anxiety caused by fear and chaos was transformed to abstract image based on "overlapped linear expression". Later, it was symbolized as a "skull" image which is a metaphor of death and futility. This paper discussed the symbolic meaning of "skull" image which symbolizes nature of anxiety from fear and chaos, death and futility as an art historic point of view by the examples of Damien Hirst(1965~2017) and Jim F. Faure(1959~2017), the modern contemporary artists.

Linear expression, the major element of my work is the most

basic way of forming image for visual communication which has drawing expression well representing the eruption of emotion. Based on the linear expression, this paper described the intention to resolve suppressed emotion through various artistic expressions such as continuity, separation, combination, and crossing, and to overcome the unconscious anxiety. Also, this study focused on the "overlapped linear expression" of major element of my work in works of Louis Bourgeois(1911–2010) and Georgia O'Keeffe (1887–1986).

The major characteristics of my work are format of "laying end to end" same images repeatedly using the plurality of engraving, and "foil bark" which displays various color and light that is similar to hologram. Thus, this paper compared my work format and other artists' work which promote expandability of expression by repeatedly connecting images to analyze the intention and expression. Also, it specifically suggested instruction background of "foil bark" which displays the color and light by the angle it is shown, its materialistic characteristic and expression method.

While working on this paper, I focused my study on the artistic point of view on "expansion of overlapped line", "laying end to end repetitive shape", and "foil bark" method for saving light and color based on the psychological experience of "unconscious anxiety".

It has prepared a chance to prepare artistic basis to visualize the "world of unconsciousness" which is invisible. As this paper recognized the possibility of visualizing the "unconsciousness of inner human" by "artistic language", I expect this study would suggest the direction of in-depth exploration on studies of my work.